

기독교 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육 : 한동대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영 한동대 교수

1. 들어가며

1994년 설립된 한동대학교는 이제 30년의 학습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대략 세 개의 시즌으로 구분한다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직업을 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결과를 내고 생계를 꾸려나가며 가족을 부양하는 시기입니다. 한동의 가족은 교직원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동의 가족인 세계시민을 이제 먹여살릴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시즌1의 목표와 전략은 명확히 시즌2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100여년의 역사를 지랑하는 선배 기독교대학교들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동의 출발은 “진정한”이란 수식어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기독교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진정함”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은 교육의 중심인 수도권이 아닌 “벗꽃 지는 순서로 사라질” 지방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한동이 긴 세월을 함께한 한사람으로 기독교 대학에 대한 고민을 나눔에 혹여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길을 가는 동지로서, 함께 고민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여 “기독교대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보탬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시간의 검증 혹은 시간의 변화를 담아내는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2. 하나님의 지혜의 집

Wisdom house는 모든 대학이 꿈꾸는 본질일 것입니다. 지혜의 집은 오늘날 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그 지혜의 횃불은 지역을 옮겨가면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랜 근동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문명은 철기시대까지 이르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에게해에서 비로서 제대로된 철기를 만들어낼 풀무와 용광로가 발명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부유한 거상들이 있었고, 이들은 강력한 군주가 지배하는 왕국보다는 폴리스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본질이 가치를 결정하기에, 초기의 유물적 철학과 본질을 갈구하는 이데아의 관념철학이 탄생합니다. 강력한 페르시아를 격퇴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신도시를 만들고 알렉산드리아 뮤지이온이

라는 지혜의 집으로 짓습니다.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이 기독교정신과의 융합을 추구했지만, 이 지혜의 집은 무슬림 왕조가 세운 인공도시 바그다드로 옮겨가 바그다드 지혜의 집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의 쇠락과 대항해와 공장으로 생겨난 신흥 부호들과 이들의 모임인 길드는 파리와 볼로냐 런던에 드디어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아퀴나스와 같은 스콜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교리와 융합하며 대학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지혜의 집인가라는 질문은 인류가 품은 모든 지혜의 집에 던져질 질문이고, 부분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는 말씀에 일치합니다.

대학은 1000년간 세상을 지배한 기독교회의 중심이 아닌, 광야의 수도원 운동이 길드라는 초기자본주의와 만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기도(Ora)와 노동(Labora)은 대학의 중심이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의실(Oratorium)과 실험실(Laboratorium)으로 오늘날에도 대학에 존재합니다. 대학은 성경을 이해하고 전도를 하기에 충분하도록 7교양중에 3 교양(tribium)을 할당하는 커리큘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4 교양(quadrabium)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대학이 갖고있는 교양과정의 전신입니다.

대학은 이후 계몽시대와 과학발명의 시대인 17세기에서 20세기의 수백년간 기독교의 감독이 있었지만,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숙련되고 인증받은 인력을 양성하는 대량교육의 기관으로 변해왔습니다. 교과서의 발명은 대량교육과 탁월한 석학을 필요로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배출한 인제는 산업체에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어야하기때문에, 엄중한 평가를 하여 학생의 품질을 세상에 통고해야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야비한 일(등록금을 받고, 학생이 품질이 나쁘다고 판정짓는)에 속하지만 이것을 “공정한 대학”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되었습니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대졸자를 받았는데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 대학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인력생산기관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세계대전으로 거치면서 대학은 국가의 국력을 지탱하는 보루가 됩니다. 이를 통해 전격적인 국가 지원을 받고 급성장하는 대학들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차세계대전이 키운 RPI공대, 2차세계대전이 키운 MIT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런 산업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대학-산업 협업은 행정, 문화 방면에는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얼마나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가. 즉 대학이 만들어낸 유용한 지식들, 대학이 배출한 고품

질의 인재들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위스덤 하우스는 이제 쓸모(usefulness) 하우스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대학이 맞이한 대형화와 사회요구수용은 “변질”을 넘어 “타락”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학의 학문은 점차 사회적 쓸모로 가득차면서, 종종 가치가 전도되는 길잃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의 건강한 신자로서의 품성을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에 나가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주도하며 성취하는 “능력자”를 만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조류르르 반대하고 대학 원래의 목적으로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함께한 기독교대학 설립운동으로 우리나라의 신앙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 한동대학교는 531 교육개혁의 사회적 욕구와 연동되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특성화 교육과, 전공의 벽을 허무는 모집단위 광역화, 학생들이 전공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531교육개혁안은 한동대학교의 초기 특성화의 중요한 엔진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한동대학교는 기존의 대학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대학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개학교육개혁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인정 받았고, 이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94년 개교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세계화였습니다. WTO가 시작되고, WWW인터넷 웹이 열리면서 세계는 바야흐로 변화의 물결에 들어섰고, 한동대학교는 그 물결을 타고 앞장섰습니다,

3. 정체성과 전략

하나님의 대학, 글로벌 대학이라는 한동대학교의 별명은 이 대학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이 차별화를 이룬 여러 가지 전략은 이런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전략이 정체성으로 오해되는 순간, 정체성은 훼손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노자의 말처럼 정체성이라 부르는 전략이 나오는 순간 그 전략은 절대로 정체성을 구현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생각의 촉발을 위해 나열하고 싶습니다.

(1) 수요자 중심 교육

초창기 수요자 중심 교육은 교육 수요자에 중심을 두자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기성의 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531교육개혁의 중요한 항목이고, 지금도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화두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입시개혁으로 모든 학생을 무전공 무학과로 입학시키는 혁신을 했습니다, 존공 선택에 학생들의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과 더불어, 일단 선택한 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전과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식은 수요자 중심 교육의 핵심적인 혁신입니다. 이것은 지

난 30년간 유지된 교육방법인데, 기성대학들이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입니다. 이런 자유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불안정성을 직면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전공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는 전공의 교수들은 일자리의 안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불안정성으로 사라진 전공이 있는가? 30년간 학생수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기계 제어공학부의 경우는 초기 기계금속공학부에서 전공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직전, 굴뚝산업으로 몰려서 학생수가 급감하는 일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혁을 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동성은 전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학생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개선을 요구합니다.

(2) 인성교육

한동대학교의 인성교육은 다소 신비로운 면이 있어서, 초창기 교육개혁선도대학당시, 평가단은 한동대 인성교육은 카피가 불가하니, 이런 확산이 불가능한 모델에 정부의 지운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일상의 교류를 통해 인성교육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중세 대학이 지향했던 기숙대학의 길이었습니니다. 지방에 위치한 까닭에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려면 기숙사가 필수였기에,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소요했고, 이것은 대학의 재정 위기로 종종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간 것은 한동대학교가 갖고 있는 인성교육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생활관으로 명명한 이 곳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낼 동지들과 함께하는 장소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채워주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Residence college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몇 개의 생활관 단위로 묶어, 인성, 영성, 창의성 교육을 교과과정 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인성교육의 화두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워서 맘주자”로 요약됩니다.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라 손해보는 사람으로 나가는 길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한동대학교의 인성교육을 위협하는 요소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선교단체를 못들어오게 하고, 학교의 교목실을 위주로 영성을 교육하는 정책을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선교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협 요소는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점입니다. 초창기 학생들과 지금 이 학창들의 큰 차이는 이제 인성교육의 구호와 방법의 교정이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학생과 교수사이의 관계 역시 조금씩 변모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권위의 해체, 학생부 전형의 원래 뜻과 달리 일상화된, 경쟁적 시각(시험문제, 과제, 출결등에 공정성에 매우 민감)이 체질화된 것과 언타까우며, 교수들에겐 대나무 숲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어느 순간 익명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이제 한동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에서 엄한 훈육은 쉽지않습니다. 오히려 “우쭈쭈”하는 교육, 위러벨을 강조하는 교육이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한동대에도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교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인성교육을 만들오내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동년배의 다른 MZ와는 다르고, 그래도 개념이 있더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N포세대의 비관적 현실주의는 이 들을 완고한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제 대기업도 MZ세대와 함께 일하는 비법을 서로 전수하는 지경입니다. 청년 기독교인의 감소는 바로 기독교적 인성교육이 MZ세대를 변화시키는 감동이 아닌 꾀대소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4. 글로벌 대학

한동대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섬기는 과정에 전문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독교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학생들을 모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진을 비롯한 학장들을 모집하여,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함으로 자연스럽게 세계를 향한 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과제도에 글로벌교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진정성의 사례입니다. 영어로만 강의가 이루어지는 전공들이 있어,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법학부의 UIL, 경영경제의 GM, 전산전자의 GE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국제법률 대학원 HILS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500명 이상의 국제변호사를 배출하여 큰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UN과의 협업은 새로운 국제화의 축을 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창한 UN Academic Impact의 한국 주관기관으로 UNAI-Korea 법인을 운영하며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Kim YoungGil Grace School의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KOICA의 개도국 인재 교육을 위한 국제개발 대학원의 교육과. 선진국과 개도국을 dusruffg는 UNESCO-UNITWIN 사업은 한동대학교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엔진입니다.

5. 산학연구

한동대학교는 부족한 재원으로 특정부분에 집중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

니다. 초창기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관 인프라 구축, 이후에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 국제화를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비와 공간을 요구하는 산학연구를 강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영길 초대 총장님은 임기 말엽인 2013년 9월에 산학연구처를 신설하시면서, 시작의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이후 2021년까지 산학연구 연급 수주 실적은 1000% 성장했습니다, 이제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되어,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력은 영적 인도가 가장 필요한 영역임을 인지합니다. 사업비만을 쫓아던터 보면 정체성과 불일치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환경대전환, 세계 경제불확화 대전환, AI디지털 대전환, 저출산 고령화 위기등에 기여하는 산학연구의 방향은 글로벌 문제 해결형 혁신의 중추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갖출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다음 30년의 한동은 기존의 교육의 강점을 더욱 시대에 맞게 조율하면서, 연구개발 역량을 개척해서 글로벌 문제해결을 통한 소명을 감당하는 대학으로의 가능성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분야는 한정적인 재원에서 따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종종 과도한 연구 몰입으로 교수가 교육에 소홀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한동은 산학연구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교수를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연구과제 수주에 따른 자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연구교수중 업적이 출중하고 신앙이나 인품이 한동대 교수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들을 정년트랙으로 뽑아서, 학문적 수월성과 교육의 수월성을 동시에 올려가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동에서 일어난 여러 산학연구의 사례 중에 흥미로운 것을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A 실험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현장에서 발굴한 학생을 받아 교육과 연구를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대학의 교수로서 학문과 생활의 본을 보여 기독교정신을 일깨우고, 찾아 오게 하는 선교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선교가 아니라 오게하여 보내는 선교가 산학연구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가 교수와 학생사이에 매우 개별적인 지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의와 같은 대량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제자삼가의 예입니다. 한동에서는 기업가 정신도 미미하나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승의 연구결과를 확장해서 창업을 하고 상장하여 발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씨앗들이 그 수가 늘어나고 이파리가 커진다면 한동의 산학연구는 단순히 사회에 대한 기여정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이 확장에 중요한 엔진이 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6. 또 다른 한동의 가능성?

한동은 지난 30년간 기존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차별화를 모토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은 숫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기에, 또다른 기독교대학의 소망을 젊은 기독교지성들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지성운동들이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약한 우를 또다시 범하지 말고, 우리의 젊은 지성들에서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한동이 해야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학령인구의 초감소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대학은 신설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우리는 더 많은 대안 대학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안 대학은 혁신적으로 대학입시를 변화시키고, 절망한 N포세대가 거칠 것 없는 젊음의 패기로 거듭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제 교수가 lecturer에서 Facilitator로 변하고, AI와 협업하며 스스로 깨우치는 시대가 열렸기에, 새로운 위스덤 하우스의 불꽃을 지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학자의 잉크보다 언제나 진했지만, 위스덤 하우스의 어떤 시절에는 학자의 피가 순교자의 피보다 진하다고 굳게 믿던 시대가 있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지성운동을 처음 접했던 이십대 중반의 젊은이가 정년을 앞둔 교수가 되었습니다. 젊은세대로서 이전 세대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현실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더시한번 기독교 지성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젊은 기독교지성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루는 역동적인 위스덤하우스를 보고 싶습니다.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독교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육 : 한동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재영
		논찬자 (소속)	강경우 (백석대/교수)

이 논문은 한동대학교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논문이다. 이 논문을 보면서 한동대는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시행하고 운영해 온 학교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며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첫 번째로 한동대학교는 초창기부터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한 대학이다. 요즘 교육부에 의해 떠밀려서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개혁에 중심에 있는 것이 무전공 무학과 입학인데 이것을 한동대학교는 30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학생 누구나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 학교의 전공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것임에도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럼에도 한동대가 무전공 무학과로 운영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타대학교들이 한동대의 경험을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한동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 배출을 위해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시행해 왔다. 입학 당시부터 선배들을 새섬이라는 직책을 두고 교수와 함께 신입생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는 교수들과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대학 설립에 대한 취지에 동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을 하겠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헌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 번째로 한동대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설립 초기부터 받았고 또한 졸업생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방대학들이 입학자원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 외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한동대는 설립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다. 타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 후에 잠적해 버리거나 일을 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한동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지 궁금하다. 네 번째로 한동대는 재정지원사업 수주에 탁월한 학교이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사업에도 한동대는 선정되었다. 이런 사업은 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운영하는 것 역시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이런 사업의 운영에 들이는 노력이 학교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면 헌신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한동대는 연구중심 대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교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려는 동기 부여가 되는지 연구성과는 어떠한지 알고 싶다.